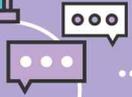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석유·가스, 중국·걸프】 中 시진핑 주식 걸프 정상
들에게 석유·가스 수입 확대와 우인화 결재 시행 뜻 밝혀

【석유, 러시아·글로벌】 러시아 유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인도, 사우디 및 러시아 등 동향

【반도체, 네덜란드·일본·미국·중국】 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전망, 美는 日 동참도 촉구

【철강·알루미늄, 미국】 美, EU에 탄소 배출량
완화 위한 관세 부과 방안 제시

【ETS, EU】 EU, 역내 항공에 제한한 현행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도 체제 유지 합의

【물류, 미국】 美 서부 LA·롱비치항 압도적 물동량은
옛말, 동부 항구 부상



GVC 뉴스 더하기

- ① 유럽 반도체법 입법 진전 및 관련 역내 공급망 현황
- ②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GVC 기초상식

대한민국 입법절차 1편 - 법률의 입법절차



GVC 돋보기

석유산업 1편 - 석유란?



GVC 전문가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아란, 정혜선



더 찾아보기

美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수립 도모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상시 지원 사업 안내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석유·가스, 중국·걸프】 中 시진핑 주석, 걸프 정상들에게 석유·가스 수입 확대와 위안화 결제 시행 뜻 밝혀

- 12.9일 중국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3~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안과 함께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할 뜻을 밝힘
 - 시 주석은 “중국은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UAE·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참여) 국가로부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석유·가스 개발,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석유·가스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
- 석유·가스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은 미국 등 서방이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상하이 석유·가스 거래소’를 위안화 결제의 플랫폼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GCC 국가들로부터 석유 수입을 지속하고 가스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중국과 걸프 국가들이 공통의 FTA 지대 창설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석유·가스가 수십년간 계속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임을 강조

출처: 연합뉴스(22.12.1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석유, 러시아·글로벌】 러시아 유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인도, 사우디 및 러시아 등 동향

- EU·G7·호주가 동참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배럴당 60달러) 시행 첫날인 12.5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터키)에서 자국 해협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보험 가입 인증을 요구하면서 유조선의 교통 체증이 가중. 러시아 흑해 항구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19척의 원유 유조선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당국은 모든 유조선에 ‘P&I 클럽’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서한을 요구. 이에 P&I 클럽 CEO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
 - 다만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에 따르면 튀르키예 일대에 머물고 있는 유조선들은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닌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같은 날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서방 정부들의 유가 상한제를 정면 거부하며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우선시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지속 구매할 것이라 밝힘
 - 러-우 전쟁 이후 인도는 할인된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꾸준히 늘려 10월엔 하루 배럴 기준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나타남 [인도PTI통신]
 -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인도를 방문 중인 아날레나 베이북 독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에너지 수요를 우선시하며, 인도에 다른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가상한제 언급
- 한편 1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유에 고정 가격을 부과하거나, 국제 기준가격(벤치마크)에 대한 최대 할인율을 규정하는 ‘유가 하한제’를 검토 중으로, 이 경우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힘
- 12.11일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방향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으며, 최근의 상황을 보면 OPEC+의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은 옳은 정책이었음이 입증되었음을 주장했다고 보도

출처: 조선비즈(22.12.12), 연합뉴스(22.12.7), 뉴시스(22.12.5/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네덜란드·일본·미국·중국】 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전망, 美는 日 동참도 촉구

- 12.7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가 미국의 對中 압박 기조에 발맞춰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 미국은 그간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네덜란드에 對中 수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음
 - 네덜란드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국가로 ASML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작년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은 15%
-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 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발표에는 14nm 공정 또는 더 발전된 공정의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임
- 한편 12.11일 日산케이신문은 지나 러몬도 美 상무장관이 12.9일 니시무라 아스토시 日경제산업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 역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 일본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생산 장비 등의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늦추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산케이는 지적하며 장관급 인사의 직접적인 협력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

출처: 매일경제(22.12.8), 파이낸셜뉴스(22.12.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철강·알루미늄, 미국】 美, EU에 탄소 배출량 완화를 위한 관세 부과 방안 제시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2.7일 美 정부는 EU에 탄소 저배출 철강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제안
 - 美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제안서는 바이든 정부의 새 무역정책 기초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
- 새 컨소시엄 '전 세계 지속 가능 철강 및 알루미늄 방식(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은 기후변화 완화 및 국내 산업 보호 강화가 목적으로, 美 정부의 제안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금속 생산에 석탄을 주로 활용하는 중국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가입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제안한 방안은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수준별 관세 차등화 방식으로 컨소시엄 가입국들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에서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 적정 수준 유지 필요. 철강 생산의 보조금 지원 통로가 되어온 국영기업의 생산도 제한해야 하며 비가입국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
 - 美 철강 산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수준으로, 컨소시엄 구성방안은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중국 등의 철강 및 알루미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임.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요가 매우 큰 상태여서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할 수 있음
 - 美 기업 경영진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따르면 컨소시엄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진전될 경우 관세 부과 대상 선정 및 배출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커질 것
- 미국과 EU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 모두에 가입을 허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美 동맹국들의 반발, 중국의 보복 조치 또는 WTO에 의한 제동 가능성 존재

출처: 뉴시스(22.12.8), 이데일리(22.12.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ETS, EU】 EU, 역내 항공에 제한한 현행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도 체제 유지 합의

- EU 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공에만 적용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
 - 이번 합의는 EEA 역외를 운항하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이 CORSIA를 통해 충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ETS 확대 적용을 반대한 EU 이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임
 - 이로써 EEA 이착륙 국제항공은 EU ETS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규제가 계속 적용될 예정
 -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1일까지 CORSIA 체제가 항공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를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EEA 이착륙 국제항공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할 예정
- 항공사별 EU ETS 무료배출권 할당은 '24년 25%, '25년 50% 축소 후 '26년 완전 폐지 예정
 - 이에 대해 항공업계 단체인 A4E는 항공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배출권 무료 할당을 폐지하였다며 반발
-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는 ETS 배출권 구매량에서 SAF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U는 '24~'30년 7년간 2천만톤의 배출권을 유보
 - EU는 유보된 ETS 배출권 판매수익의 일부를 EU혁신기금에 편입 후 항공분야 탈탄소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
- 한편, 기존 대형 항공사들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국제항공의 ETS 편입에 반대
 - 반면, 라이언에어 등 저가항공사 및 환경단체는 탄소배출이 가장 큰 국제항공(EEA 이착륙 장거리 국제항공은 전체 노선의 6%이나 항공 분야 CO₂, 질소산화물 배출량 절반 차지)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모든 항공에 대한 ETS 편입 주장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8)

■ 【물류, 미국】 美 서부 LA·롱비치항 압도적 물동량은 옛말, 동부 항구 부상

- 12.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시간대 공급망관리학과와 조사 자료를 인용해 미국 서부 대표 항만인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화물 점유율이 '22.10월 총 25%를 기록했다고 보도. 이는 20여년만에 최저치로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북미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던 LA항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동안 동부 뉴욕·뉴저지항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황
 - 미국태양상선협회(PMSA)에 따르면 '22.1~9월 LA항 컨테이너 수입량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반면, 뉴욕·뉴저지항은 10.4% 증가
- 물류항 중심축 변화의 배경은 복합적이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부 항만에서 벌어진 극심한 물류 병목현상을 겪은 화주들이 동부와 남부 항만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
 - (물류 적체 현상)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화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22.1월에는 캘리포니아 연안에 화물선 109척이 하역을 위해 대기하는 등 성수기 대목을 농친 기업들의 큰 손해로 이어진 바 있음
 - (美·中 갈등) 미국이 대서양간 교역을 늘리며 '22.1~10월 미국의 EU·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089억 달러를 기록하여 對中 수입액 4,729억 달러 상회했으며 이는 동부 항구의 지리적 이점으로 작용
 - (서부항만노조 파업 우려) 지난 7월, 기존 단체협상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서부해안항만노조(ILWU)는 파업없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나, 사용자 측인 태평양해사협회(PMA)와의 협상 장기화로 향후 파업 가능성 상존
- 서부 항만 화물 비중 감소는 미국 동남부 항만들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져 일부 항만들은 급증할 물동량 대비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 중. 릭 코튼 뉴욕·뉴저지항만청 상무이사는 “기록적인 수준의 화물이 계속 항구를 찾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화물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조지아항만청은 대형 컨테이너 처리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1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 업체들이 화물을 내륙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27,800㎡ 규모의 대형 창고 완성 예정

출처: 매일경제(22.12.11) 등 언론보도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종합

GVC 뉴스더하기 ① : 유럽 반도체법 입법 진전 및 관련 역내 공급망 현황

◆ 12.1일 EU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은 유럽 내 반도체 공급난 해결과 기술 자립을 위해 430억 유로(한화 약 59.5조 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관련 동향을 알아보자

■ 유럽 반도체법 입법 동향

- EU 이사회는 12.1일 유럽 반도체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 채택. 2.9일 집행위가 발표한 초안에 △기금 투입 계획 구체화, △관련 용어 및 요건 명확화, △위기 발동 관련 이사회 역할 확대 제안

* (이사회 일반적 접근) 입법 과정에서 의회-이사회간 원활한 논의를 위해 법안 관련 의회의 입장 채택 전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다만 이사회의 최종 입장은 의회 심의 후 별도 채택 필요

- 향후 EU 의회의 법안 관련 입장 채택 후 입법기관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도출할 전망

■ 주요 내용

- (기금 투입) 반도체법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43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EU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에 EU기금 33억 유로 투입 예정

	기금명	투입 규모	기금 개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Horizon Europe	16.5억 유로	'21-'27년 총 955억 유로 규모 EU 연구혁신 지원
	Digital Europe	12.5억 유로	'21-'27년 총 75억 유로 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

* 당초 계획 대비 모자라는 4억 유로 조달 방법은 집행위에 마련 요청

- (용어·요건) 지원 대상 반도체 설비의 정의 및 요건 추가

- 역내 최초로 도입되는 통합생산설비·개방형 EU 파운드리 시설에 각종 혜택(파일럿 라인 구축 우선순위 등) 부여 예정
- 집행위 제안 대상 시설 기준에 EU 반도체 생태계내 긍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명시
- 이밖에 최초 도입(first-of-a-kind) 요건에 제조 공정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한 혁신(연산력, 보안, 에너지효율 등)을 추가

- (위기관리) 위기 단계 발동시 이사회 표결을 거치도록 조정

- 위기 단계 발동시 집행위는 메가랩에 핵심 분야(방위, 의료) 우선 구매 주문 혹은 공동 구매 추진 가능
- 이사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핵심 분야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지나친 범위 확장 가능성으로 미포함
- 위기 단계 발동시 이사회 가중다수결(회원국의 55%인 15개국 및 EU 전체인구의 65% 찬성 필요)을 거치도록 변경

■ (참고) 유럽 반도체 산업 현황

- 유럽 내에는 ASML 등 장비 제조사, Imec, Leti, Fraunhofer 등 연구소, 자동차·의료·산업용 장비 반도체 제조사, 화학 소재 제조사 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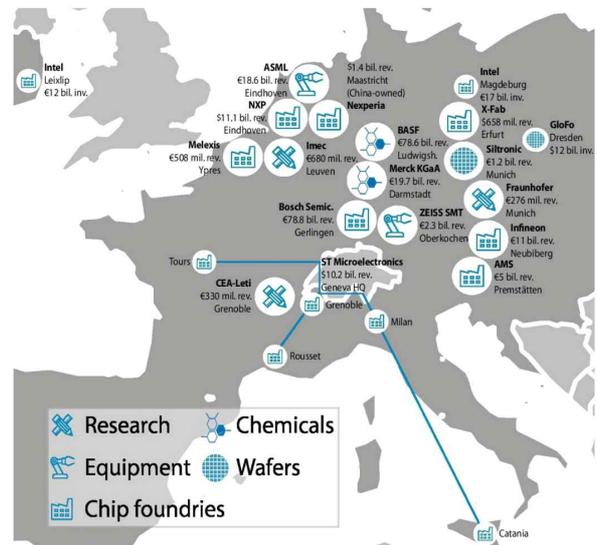
- 유럽의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약 10% (21년 기준)

• 미국 35%, 한국 16%, 일본 13%, 중국 11%, 대만 10% 수준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21년 기준)〉

부문	점유율	부문	점유율
EDA, 핵심IP	20%	디자인	8%
장비	21%	소재	6%
웨이퍼 제조	9%	패키징/어셈블리/테스트	4%
총 합		10%	

〈유럽 주요 반도체 기업·연구소 지도〉



GVC 뉴스더하기 ②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EU 공급망 실사 확산 움직임 등에 대응하여 우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EU 공급망 실사

- EU 의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관련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공개(22.2) 및 제도 도입 계획
 - * EU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실사 후 관련 내용 공시 의무화
 - 애플, 인텔, GM,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
- 이에, 대기업 등 원청기업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ESG 리스크를 관리·감독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 (배경)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여 현장형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개발**
 - * 업종별 기업 연합체,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eSI(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등
 - ** K-ESG 가이드라인(21.12월 발표) : 상장 대기업 활용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월 발표) : 중소·중견기업 위주 활용
- (항목)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 항목 개발**
 - ①글로벌 이니셔티브 지표기준 조사 → ②이해관계자(산업계 등) 의견수렴 → ③국내 법/규제/제도 정합성 검토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 ESG 정보공시 방식, 정보공시 주기, 정보공시 검증 등	· 환경경영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유해물질 관리 등	· 정규직 비율, 인권정책 수립, 근무 시간 준수, 안전보건 인허가 취득 등	· 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공익 제보자 보호, 정보공개 투명성 등

- (구성) 기업 규모, ESG 경영도입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응력을 순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단체계 이원화(기초·심화) 및 「ESG 업무 표준 매뉴얼」 포함**

〈공급망 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 구성〉

기초 진단	심화 진단	추가 진단	ESG 업무표준 매뉴얼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필수 진단 · 산업 이니셔티브 공통 요구 지표로 구성 12개 범주 25개 진단항목	· 공급망 실사 본격대응 위한 심화 진단 · 산업 이니셔티브 요구 지표를 종합 18개 범주 60개 진단항목	· 공급망 실사 대응 외 ESG 수준 향상 진단 · 국정현안, 정부정책 연계 또는 기여 지표로 구성 10개 진단항목	· ESG 경영 도입 위해 실무적으로 참고 · 조직체계, 정보공시, 평가 대응 등 절차 설명 8개 업무별 절차

- (활용) △대기업은 협력사의 ESG 리스크 진단·실사, △중소·중견기업은 공급망 ESG 평가 대응 체계 구축, △유관기관·정부 등은 중소·중견기업 ESG 수준 평가 및 정책 수립시 활용

■ 향후 계획

- '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 지원 및 업종별 대응(자동차, 반도체 등)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진단 실시 → 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 진행 → 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 제시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2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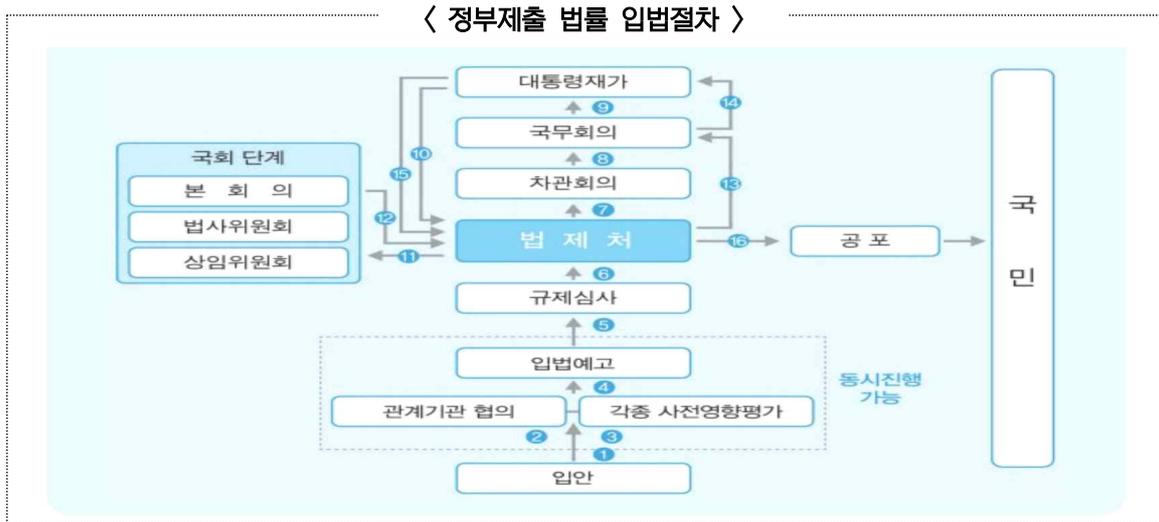
작성 종합전략실

GVC 기초상식 : 대한민국 입법절차 1편- 법률의 입법절차

◆ 우리나라의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제출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법률안**, △위원회가 제출한 **위원회제안 법률안**으로 나뉨. 각각의 경우 입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입법절차 시리즈〉
 37호: 법률의 입법절차
 38호: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 (행정기관)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①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②입안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③각종 평가(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등)를 요청해야 함
- (입법예고) ④법률안은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⑤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음
- (법제처심사) ⑥그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의뢰된 법령안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을 거쳐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를 완료함
-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⑦차관회의 및 ⑧국무회의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⑨대통령이 재가하며 ⑩법제처는 지체없이 ⑪국회에 법안을 제출함
- (국회) ⑫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이송되며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함

② 상임위원회 심사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해 제안자에게 질의하는 대체토론과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 실시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후(필요할 경우) 법안수정·폐기여부 등을 표결함

③ 체계·자구심사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사함

④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상정 전 또는 후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 주요의안 대상(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⑤ 본회의 보고 및 의결

- 심사완료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제가 되면 위원장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 그 후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⑥ 법률안 정리 및 정부이송

-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법제처)에 이송

- (국무회의 상정) ⑬법제처는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 ⑭국무회의 심의·의결된 ⑮법률 공포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
- (공포) ⑯법제처에서 공포 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되며,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함
 -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함

■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

- (초안마련)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전문가·법제실 등과 협업하여 법률안을 갖추고 발의 이유를 붙여 발의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하는데 의원 발의 방식은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입법이 빠름
- (입법예고) 의원입법의 경우도 상임위원회 심사 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5일 이상으로 다소 짧음
 - 정부입법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국회이후) 의원발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이후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와 절차가 같음

■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법절차**

- (초안마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됨

〈 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일부발췌 〉

1.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 운영,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소관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소관 사항
- ………… 〈중략〉 ……………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16.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 심사관련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

- (위원회제안) 법률입안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촉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거나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함
- (국회이후) 위원회제안 입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이후에는 법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와 절차가 같음

GVC 돋보기 : 석유산업 1편 - 석유란?

- ◆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OPEC+ 원유 감산 결정(10.5) 등으로 높은 국제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인 석유에 대해 알아보자

〈석유 산업〉

40호: 석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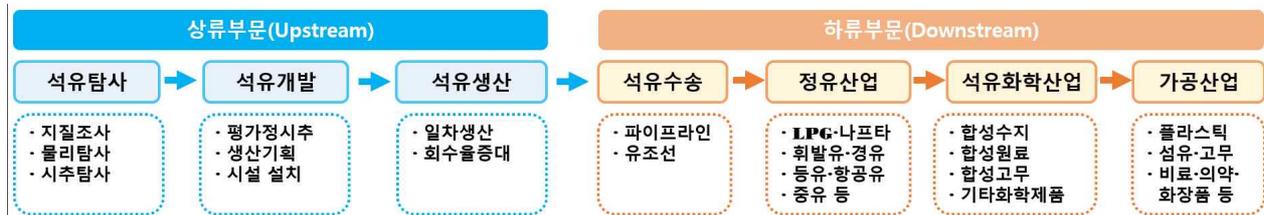
41호: 석유 생산·운송

42호: 석유 정제·활용

■ 석유(Oil)란?

-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액체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탄소(C)와 수소(H)를 중심으로 조합된 무수한 화합물의 혼합물로 천연적으로 산출된 원유(Crude Oil)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으로 구별
- 우리가 활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 중 가장 폭넓은 용도와 유용성을 보유하여 수송·산업·가정용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도 활용
 - 현재 석유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1%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IEA, OPEC 등 해외전문기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석유 밸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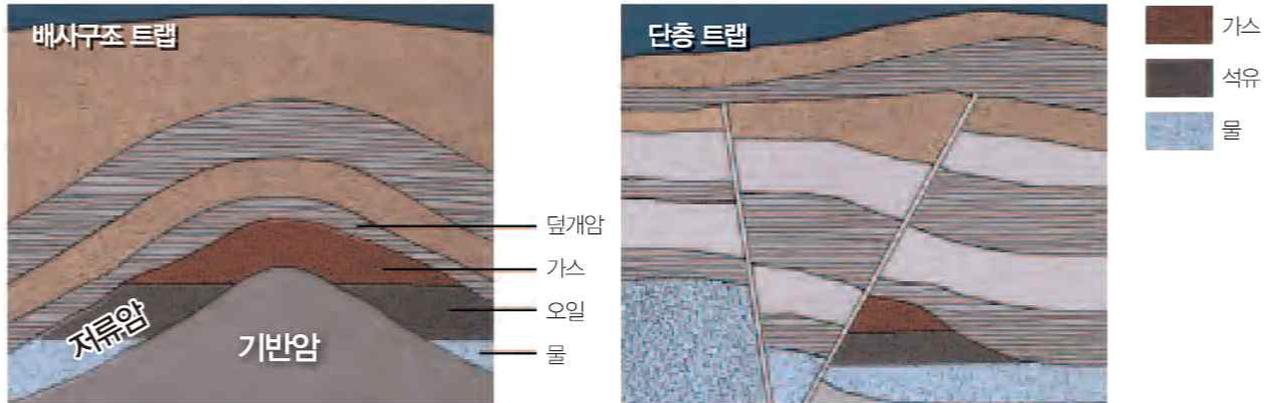
■ 석유의 특성

- 원유(정제하지 않은 석유)는 물보다 가볍고,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암녹색 또는 흑갈색의 끈적한 액체로 여러가지 탄화수소 화합물이 혼합되어 단일물질과 달리 일정한 끓는점이 없고 종류범위를 갖고 있음
 - 석유제품은 원유에서 연쇄적으로 생산되는 연산품이기 때문에 특정 석유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움
- 석유는 주성분이 탄화수소라는 점에서 천연가스와 함께 탄화수소연료라고도 불리며, 탄소-수소의 조합에 따라 메탄(CH₄)에서부터 수백개의 탄소와 수소 원자로 구성된 다양한 화합물 생성 가능*
 - 다양한 분자구조와 변형성이 각종 원료 및 화학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임
 - * 석유제품은 탄소가 사슬처럼 이어진 메탄(CH₄), 에탄(C₂H₆),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과 메탄올과 같은 '지방족' 화합물, 6각형 고리 모양의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방향족' 화합물 등 300여종이 넘음
- 석유가 생성·저장되기 위해 필요한 지질구조 등의 조건을 구비한 장소가 한정되어 전세계적으로 매장 지역이 편재되어 있으며 주요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이 불일치해 장거리 운송 필요

■ 석유의 생성과 유전

- 석유의 기원은 '5억년간 바다 밑바닥에 퇴적된 수생동식물의 유해가 박테리아의 작용 및 지층의 온도·압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탄화수소로 변했다'는 유기기원설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
 - 현재 석유가 발견되는 곳의 대부분이 과거 얕은 바다나 호수였던 지역의 퇴적암이라는 점과 유기물인 단백질이 분해될 경우 발생하는 질소, 황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는 점 등이 주장을 뒷받침
 - 유기기원설과 대치되는 이론으로 '지구 내부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금속화합물이 물의 침투작용을 받아 고온·고압에서 반응하여 가스에서 액상의 탄화수소로 변했다'는 무기기원설도 있음

- 유전(Oil field)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유기물질을 석유·천연가스로 전환해 주는 **근원암(Source rock)**, 석유가 머물 수 있는 공극을 보유한 **저류암(Reservoir rock)**, 석유 가둬두는 **덮개암(Cap rock)** 필요



※ **셰일 가스(Shale Gas)**

- 지하 100~2,600m에 걸쳐 다양한 심도에 미세한 진흙이 수평으로 쌓여 생성된 **퇴적암석층(혈암·이암 등) 안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로 전통 가스와는 다른 암반층에서 채취하여 **비전통 천연가스**로 분류
 - '00년대 이후 수평시추·수압파쇄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 붐이 확대되었으나, '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유가급락 등으로 상당수 업체 파산
 -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원유·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셰일가스 업계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며 재주목받고 있음

	전통 천연가스	셰일가스
부존 형태	· 석유가 근원암에서 이동해 저류암에 집적	· 근원암이 저류암 역할, 셰일층 전체에 넓게 분산
시추 방법	· 수직 시추	· 수평 시추
개발	· 대규모 초기 비용,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음	· 매년 대규모로 시추하며 상황에 따라 계획 수정
생산	· 자연유출 및 증진회수	· 수압 파쇄

■ **석유 매장량**

- 석유의 매장량이란 지하의 석유를 지표로 끌어 올렸을 때 1기압 15℃ 표준 상태에서의 석유의 용적을 의미하며, **기술력·경제성 등을 감안해 원시매장량, 가채매장량, 확인매장량** 등으로 구분
- 2020년 기준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은 1조 7,300억 배럴**로 추정되며 **가채년수는 약 50년(BP)**
 - 전세계 **확인매장량의 48%가 중동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중남미 19%, 북미 14%, CIS 8%, 아프리카 7%, 아시아·유럽 3% 비중 점유(주요 산유국 집합체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은 70% 석유매장량 점유)

〈석유 매장량 관련 주요 개념〉

- **원시매장량(Oil in Place)** : 유층 내 **집적된 석유의 총량**(유층의 용적과 석유의 포화율에 의해 원시매장량 추정)
- **가채매장량(Recoverable Reserves)** : 유층 내 석유 중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석유의 총량**
- **회수율** : 원시매장량 중 채굴할 수 있는 원유의 비중(=가채매장량/원시매장량)
- **확인매장량(Proved Reserves)** : **현재의 기술·경제성 하에서 생산가능한 물량**(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
 - ※ 확인매장량 = 가채매장량(원시매장량 × 회수율) - 경제성이 없어 생산되지 않는 물량
- **가채년수** : 현재와 동일한 규모로 생산할 경우 **원유 생산이 가능한 년수**(= 확인매장량/연간생산량)
 - ※ 가채년수가 50년이어도 석유가 50년 후 고갈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진보 등에 따라 가채년수도 변동**
 - ⇒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석유 소비량은 급증하였음에도 석유의 가채년수는 지금까지 50여년 수준 유지
 - ※ 배럴(Barrel, bbl) : 원유 용량의 기본단위로 석유 생산초기 나무 술통(Barrel) 활용해 원유를 운반한 것에서 유래(1bbl≒158.9리터)

GVC 전문가: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아린, 정혜선

◆ 올해 우리 수출은 어려운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6,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2022년 한 해 우리 무역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달성 전망

- 올해 수출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및 경기 둔화, 러·우 전쟁, 미국의 통화긴축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실적(6,444억 달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치(6,900억 달러) 달성 전망**
- 세계 주요 제조 경쟁국들을 앞서는 수출증가율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6위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4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수출 5위로 부상**

〈 주요국의 對세계 수출실적 비교('22.1~9) 〉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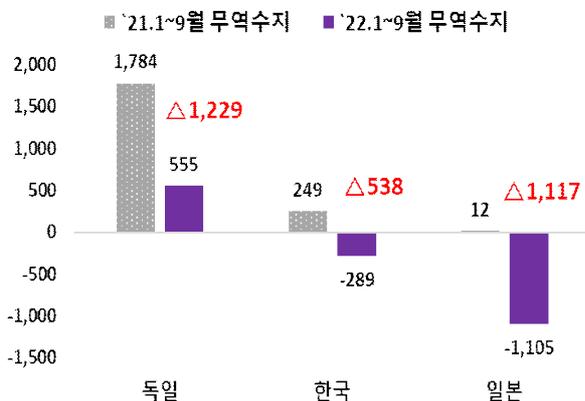
국가명	중국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네덜란드 (4위)	일본 (5위)	한국 (6위)	이탈리아 (7위)	벨기에 (8위)	홍콩 (9위)	프랑스 (10위)
수출액	27,004	15,446	12,405	7,154	5,585	5,247	4,896	4,734	4,656	4,585
증가율	(12.6)	(21.2)	(1.8)	(16.7)	(-0.02)	(12.2)	(7.7)	(19.4)	(-3.6)	(6.7)
순위변화	1→1	2→2	3→3	4→4	5→5	7→6	8→7	10→8	6→9	9→10

주 : 순위변화는 2021년 대비 2022년 1~9월 순위 변동
자료 : WTO

■ 에너지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

- 수출 선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적자 전환
- 우리나라 무역적자 규모는 여타 제조 기반 수출강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중동 산유국에 집중, 對미국·EU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

〈주요국 무역수지 비교('22.1~9)〉



주 : 유로화, 엔화는 기간별 평균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표기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독일 통계청

〈對산유국·非산유국 무역수지 비교〉

구 분	2021.1~10 (a)	2022.1~10 (b)	증감 (b-a)	
전세계	267	-356	-623	
산유국	GCC 6개국	-359	-690	-331
	(사우디)	-158	-314	-156
	(UAE)	-27	-92	-65
	(카타르)	-88	-132	-44
	(쿠웨이트)	-61	-104	-43
	(오만)	-21	-42	-21
非 산유국	(바레인)	-3	-7	-4
	EU28(英포함)	-17	16	+33
	일본	-201	-200	+1
	중국	212	26	-186
	미국	181	23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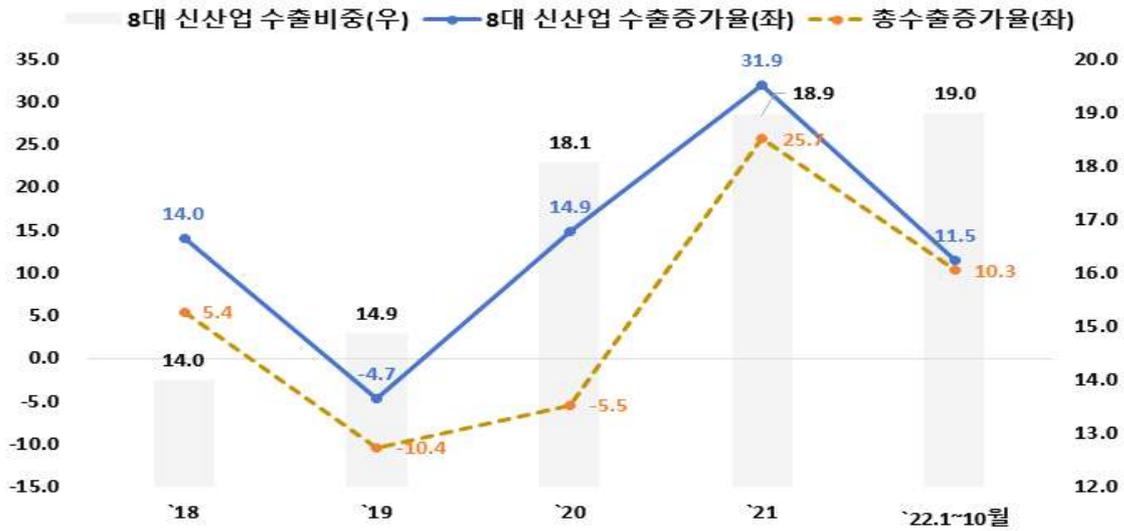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신산업 품목이 약진하며 우리 수출의 질적 성장을 주도

-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 품목이 선전하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

〈8대 신산업 수출 비중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서비스 수출 호조로 수출 외연 확대

-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세(15.2%)를 이어감
- 지식재산권 수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흑자를 나타냈으며 연간 실적으로도 올해 최초로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
 - GVC 재편의 흐름 속에서 중국, 대만, 아세안 등 역내(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선진 소비시장 또는 기술개발 거점국으로의 이전(니어쇼어링, Near-Shoring)을 확대할 필요
 - 미국 등 각국의 투자유치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경쟁국들보다 한발 앞선 전략적인 판단 또한 중요

〈부문별 서비스 수출 증가율('22.1~9)〉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지식재산권 수지	-0.7	0.4	3.7
산업재산권	-10.1	-12.1	-3.7
특허 및 실용신안권	-5.8	-6.5	-1.1
디자인권	0.6	0.9	0.6
상표/프랜차이즈권	-4.8	-6.4	-3.2
저작권	10.4	14.1	8.7
문화예술저작권	3.3	4.2	3.8
연구개발/SW 저작권	7.1	9.9	4.9
기타 지식재산권	-1.0	-1.7	-1.3

자료 : 한국은행

더 알아보기 : 美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수립 도모

◆ 현재 美 상원에는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법안 통과시 미국은 우방국의 對中 희토류 의존도 관리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 법안 개요

- 현재 美 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계류 중
 - 일명 '리쇼어 법안'(REEShore Act)은 공화당 톰 코튼 /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1.14)
- (입법 취지) △희토류 공급망 혼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내 생산 활성화를 통해 △對中 희토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함
- (법안 주요 내용) △희토류 전략 비축물자 확보, △투명한 원산지 공개, △첨단 무기 체계에서 중국 희토류 배제, △중국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로 요약됨
 - (희토류 전략 비축물자 신설) 국방부와 내무부가 '25년까지 희토류 및 유관 제품의 전략비축물자 확보
 - * 군대, 국방산업, 기술 섹터 및 핵심 인프라 시설 등이 최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
 - (원산지 공개 의무화) 국방 계약업자(defense contractor)가 국방부 납품에 사용된 희토류 자석류 (rare-earth magnets) 원산지를 추적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첨단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 제한) '26년까지 안보에 민감한 국방시스템에 중국산 희토류 사용 금지
 - (국방 계약자 의무 준법 감시) 감사원장은 2년마다 모든 국방 계약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계약자 의무 준수에 대한 감사 실시
 - (중국의 희토류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美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 부과 등 검토
 - (美 우방국의 對中 희토류 의존도 최소화 노력) 매년 국방부 장관은 국무부와 협의해 소관 상임위에 '희토류 공급망 안보에 관한 우방국과의 협의 결과, 우방국의 對中 희토류 의존도 완화 평가, 외국의 희토류 생산역량 강화 노력 평가' 등을 보고
- 이번 117대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너지 자원위 등) 법안심의 통과에 실패하여 이번 회기 통과는 무산될 전망이다. 차기 118대 의회에서 입법 재론 유력
 - 6.13일에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자 법안(companion bill)이 발의됐으나, 상원에서처럼 상임위 통과 실패 (공화당 피츠패트릭 / 민주당 고트하이머 의원 공동 발의)
 - 법안을 발의한 상·하원 의원 4명 모두 차기 의회 의원직 유지 확실. 여야의 초당적 지지 속에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현지 반응 및 전망

- 미국의 對中 희토류 의존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각심 고조
 - '21년 美 희토류금속·화합물 수입 총액 1억6천만 달러 중 對中 수입이 전체의 약 78% [미국지질조사국]
- 美 의회에는 희토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법안도 계류 중으로, 리쇼어 법안과 생산 세제 혜택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美 희토류 산업 보호·육성 정책이 동시에 갖춰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위기
 - 미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에 킬로그램 당 20달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The Rare Earth Magnet Production Tax Credit Act' 법안을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이 '21.8월 발의, 캐터린 코르테즈-매스토 상원의원 역시 '22.7월 동명의 동반자 법안 발의
- 우리나라 역시 주요 對中 희토류 수입국 중 하나로 동 법안 수립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출처 KOTRA 미국경제통상리포트(US22-40), 미국 의회 홈페이지, CSIS China Power, 미국지질조사국 등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상시 지원 사업 안내

■ 디지털 공급망 실사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 실사 방식(국내 공장 또는 현장을 바이어에 제시) 또는 해외 실사 방식(해외 공장 또는 현장을 국내기업에 제시)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비대면 수출마케팅 상시 지원 사업

- 사업 분류 (하기 예시 이외 디지털 실사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 지원 가능)

구분	국내 실사	해외 실사
1:1	디지털 공장실사, 국제인증 실사 *국내기업 생산시설 비대면 실사	글로벌 공급망 생산시설 조사 등 *해외 원/부자재 공급처 확인
	디지털 ESG 공급망 실사 *지속가능성, 환경, 인권/윤리, 작업장 안전/보건 등 비대면 실사	현지 매장조사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 등 대리 방문
N:N	국내 전시회 (서울식품전 등) 해외 바이어 대상 디지털 참관	해외 전시회 (CES, MWC 등) 국내 바이어 대상 디지털 참관

- 지원금액 : 전체 서비스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최대 70%), 중견기업(최대 50%) 국고지원
* 수출 바우처 보유 기업은 바우처 사용 가능
- 참가신청 : [디지털 실사\(클릭\)](#) 내용 검토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첨부)디지털 실사 사업 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기업 정보 기입 후 필수 첨부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신명진 사원 ☎ 02-3460-7642 / myeon9jin@kotra.or.kr

■ GP(Global Partnering) 센터 입주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안착 서비스

- 해외 현지 사무 공간을 제공부터 현지 거점설립 및 맞춤형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착 상시 지원 사업

- 센터 지역별 핵심 지원 분야 및 참가비용 (1개社 당 2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지역	핵심 지원 분야	형태	입주 부담 금액
나고야	자동차, 항공, 기계	사무실임차형 (무역관 별도 계약 사무실 내 사무 공간 지원)	세부 가격은 별도 문의 요망. 중소·중견기업별 부담금액 상이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항공, 기계		
디트로이트	자동차		
오사카	조선, 전력기자재, 기계		
상하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	공유오피스형 (무역관 지정 현지 공유오피스 내 사무 공간 지원)	
멕시코시티	자동차		
쿠알라룸푸르	조선해양플랜트		
아테네	조선해양플랜트		
뮌헨	자동차		
실리콘밸리	자동차, 반도체		

- * 핵심 지원 분야 외 분야도 신청가능하며,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은 담당자 별도 문의
- * 사무실임차형 입주 부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 KOTRA 담당자를 통해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가능성, KOTRA 지원 효과, 수출실적 등 종합 검토
- 참가신청 : [GP센터\(글로벌 공급망 안착 서비스\)\(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GP 센터 입주신청서 및 계약서 양식에 맞춰 기입 후 필수 첨부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최진형 차장 ☎ 02-3460-7650 / choijh@kotra.or.kr

[KOTRA]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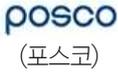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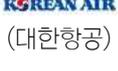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뭌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

기업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제품) or 포워더 가능 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사업안내 (클릭)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출항지: 광양항/마산항/평택항 → 도착지: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시행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 일정 개별 공지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클릭)												
 (고려해운)	[인트라 아시아 중소화주 수출선복 제공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선적 희망일로부터 22일 이상 여유 있는 수출 중소기업 (포워더 신청 불가) 가능 품목: 일반 FCL 컨테이너화물 (LCL 불가)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사업안내에서 희망 국가 클릭 후 사업 신청 사업안내 (클릭)												
[항공운송]														
 (대한항공)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포워더 신청 불가) 가능 품목: 일반 항공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body>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 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 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월 유럽·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 불가)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TCR은 40ft만 가능) 	(운임 할인 및 지원 사업) 사업안내 (클릭) (10~12월 추가 지원 사업) 사업안내 (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 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TCR</td> <td>인천, 평택</td> <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TSR</td> <td>부산</td> </tr> </tbody>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 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 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부산신항 물류센터 컨테이너화물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 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 가능 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 수배)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5754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2. 14. 수)

[환율]

	'20.12.31	'21.12.31	'22.11.30	'22.12.9	'22.12.12	'22.12.13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318.80	1,301.30	1,307.20	1,306.00	-0.09%	+9.86%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20.10	1,300.80	1,306.60	1,301.00	-0.43%	+9.33%
₩/CNY	166.04	186.51	185.25	189.55	188.07	187.67	-0.21%	+0.62%
₩/Y100	1,051.19	1,032.48	952.61	956.14	954.09	949.47	-0.48%	-8.04%
Y/U\$	103.34	115.14	138.44	136.10	137.01	137.55	+0.39%	+19.46%
U\$/EUR	1,2279	1,1318	1,0345	1,0570	1,0511	1,0551	+0.38%	-6.78%
CNY/U\$	6.5305	6.3681	7.1427	6.9595	6.9792	6.9756	-0.05%	+9.54%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2.12 (전일)	'22.12.13				
					전일(12.12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71.83	75.48	▲3.7 +5.1%	▲25.4 +50.8%	▼1.6 -2.1%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10.25	110.30	▲0.0 +0.0%	▲23.0 +26.4%	▼10.5 -8.7%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371.50	8,381.00	▲9.5 +0.1%	▲625.5 +8.1%	▼1,311.0 -13.5%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390.00	2,388.00	▼2.0 -0.1%	▲436.5 +22.4%	▼418.0 -14.9%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9,310.00	28,800.00	▼510.0 -1.7%	▲12,893.0 +81.1%	▲7,875.0 +37.6%

[반도체]

	'20	'21	'22.9	'22.10	'22.11	12.8	12.9	12.12	12월(~12)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2.51	2.41	2.16	2.07	2.06	2.05	2.0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2.7%	-32.4%	-33.1%	-37.0%	-37.3%	-37.4%	-39.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57	6.57	6.53	6.52	6.52	6.52	6.5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5.4%	-9.6%	-11.2%	-12.6%	-12.7%	-12.8%	-12.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1.18	'22.11.25	'22.12.2	'22.12.9		
						전주(12.2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306.84	1229.90	1171.36	1138.09	-2.8%	-77.4%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0.31	'22.11.30	'22.12.8	'22.12.9	'22.12.12		
							전일(12.9)비	'21년말비
BDI	2217	1463	1355	1385	1386	1361	-1.8%	-38.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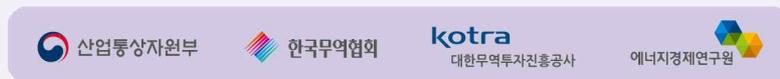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